



“결승 간다” 환호하는 네이마르

파리 생제르맹(PSG)의 네이마르가 19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오 다 루스에서 열린 라이프치히와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에서 3-0으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리 생제르맹, 사상 첫 챔스리그 결승 진출

디마리아 1골 2도움 원맨쇼  
라이프치히 3-0 완파  
황희찬은 새 시즌에 UCL 도전

이로써 PSG는 구단 사상 처음으로 유럽 클럽대항전 최상위 대회인 UCL 결승에 오르는 역사를 썼다. 이 대회 전신인 유러피언컵 시절까지 포함해 처음 있는 일이다. PSG가 유럽 클럽대항전 결승에 진출한 것은 1997년 컵위너스컵(FC바르셀로나 우승) 이후 23년 만이다. PSG 대표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가 태어난 게 1998년이다. 카타르 왕족 자본인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2011년 인수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부은 덕에 프랑스 내에서 압도적인 강팀으로 군림해 온 PSG는 인수 9년 만에 '유럽 최강'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잡았다. 이미 2019-2020시즌 리그1, 쿠프 드 프랑스

(FA컵), 쿠프 드 라 리그(리그컵)에서 우승컵을 휩쓴 PSG는 UCL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면 '쿼드러플(4관왕)'을 달성하게 된다. PSG는 20일 열리는 리옹(프랑스)-바이에른 뮌헨(독일)전 승자와 24일 오전 4시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PSG는 전반 13분 만에 마르키노스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디마리아가 왼쪽에서 올린 대각선 프리킥 크로스를 마르키노스가 머리로 방향만 바뀌 골대에 넣었다. 후반 42분에는 디마리아가 직접 추가 득점에 나섰다.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라이프치히 수비 실수를 틈타 공을 가로채 페널티 지역 안으로 패스를 보내 자 네이마르가 감각적인 왼발 힐 패스를 문전의 디

마리아에게 배달했다. 디마리아는 침착하게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디마리아는 후반 11분 나온 후안 베르나트의 헤딩 췌기끝까지 정확한 크로스로 도와 3골 모두에 관여했다. 독일 5부 리그에 있던 2009년 음료 회사 '레드불'에 인수된 뒤 11년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며 유럽의 신흥 강호로 자리매김한 라이프치히는 아쉽게 첫 UCL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라이프치히는 다음 시즌에는 '황소' 황희찬을 새 무기로 장착해 새롭게 UCL 무대 도전에 나선다. 황희찬은 이적 선수 등록 기간이 지난 뒤에 라이프치히로 이적해 이번 대회에 뛰지 못했다. /연합뉴스

## '손가락 욱설' 징계 풀린 김비오 내일 매경오픈으로 필드 복귀

출전 정지 징계에서 풀린 김비오(30·사진)가 국내 필드에 복귀한다. 김비오는 21일 강원도 춘천 엘리스안 강촌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하는 제39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에 출전한다.



김비오는 지난해 9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갤러리 쪽을 향해 손가락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해 투어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처음에는 3년 출전 정지였다가 1년으로 경감됐다. 이후 KPGA 코리안투어는 지난달 김비오의 징계를 해제하는 특별 사면을 단행, 이번 GS칼텍스 매경오픈을 통해 복귀하게 됐다. 김비오는 올해 2월 아시안투어 켈리파이스를에 출전해 5위에 올라 시드를 확보했고 이후 3월 뉴질랜드오픈 공동 30위, 말레이시아오픈 공동 31위의 성적을 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아시안투어가 중단돼 김비오로서는 이번 GS칼텍스 매경오픈이 약 5개월 만에 대회 출전인 셈이다. 국내 대회로 따지면 물의를 일으켰던 지난해 9월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이후 약 11개월 만에 출전이다. /연합뉴스

## 세계 1위 은 램, 코로나19 우려에 “유러피언투어 타이틀 방어 포기 고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은 램(스페인)이 코로나19 우려로 유러피언투어 타이틀 방어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램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던의 TPC 보스턴에서 “지금 당장은 유럽에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램은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달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을 바탕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른 그는 이번 주에는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차전인 노던트 러스트에 출전한다. 그는 9월 17~20일 열리는 US오픈까지 출전하고 유럽으로 이동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램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램은 지난해 유러피언투어에서 3승을 올렸다. 그가 우승한 대회 중 스페인 오픈은 이미 올해 대회가 취소됐지만, 아일랜드 오픈은 9월 24~27일로 조정됐고, 12월 10~13일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이 열린다. 램은 각 지역의 코로나19 지점과 대회의 방역 수준 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12월 크리스마스에 스페인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면서 “이것이 지금은 더 큰 문제다. 스페인에서 가족을 보는 것과 골프 대회에 나가는 것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골프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토트넘, 베테랑 골키퍼 조 하트 영입

토트넘 홋스퍼가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골키퍼 조 하트(33)를 영입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은 18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하트와 2022년까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하트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프리미어리그 팀 번리와 계약이 만료돼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토트넘과 협상해 왔다. 이번 계약으로 하트는 덴마크 국가대표 미드필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에 이어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토트넘이 영입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 하트는 위고 로리스, 파울로 가사니가와 함께 토트넘 골문을 지킨다. 하트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월드컵과 유럽축구 선수권대회에 두 차례씩이나 참가하는 등 A매치 75경기를 뛰었다. 고향 팀 슈투트가르트 타운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프리미어리그(2회), FA컵(1회), 리그컵(2회) 우승도 경험했다. /연합뉴스

# NBA ‘이변의 날’ 1위 레이커스·밀워키, 8위 팀에 1차전 탈피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에 턱걸이 진출한 팀들이 각각 동·서부 콘퍼런스 1위 팀을 첫 경기에서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했다. 서부 콘퍼런스 8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ESPN 와이드 월드 오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2019-2020 NBA 플레이오프 1회전(7전 4승제) 1차전에서 서부 1위 LA 레이커스를 100-93으로 제압했다. 포틀랜드가 가장 중요한 첫 경기를 가져가면서 시리즈는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킹’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앞세워 10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레이커스에 절대 작지 않은 약재다. 데이비언 릴러드가 팀에서 가장 많은 34득점을 올리며 포틀랜드의 승리를 맨 앞에서 이끌었다. 특히, 89-89로 팽팽하던 경기 종료 3분 10여초 전 릴러드가 먼 거리에서 던진 3점포가 승리에 결

정타가 됐다. 이어진 레이커스 공격이 실패하고 카멜로 앤서니가 또 한 번 3점포를 성공시켜 6점 차로 벌리면서 승부의 추는 포틀랜드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레이커스는 제임스의 팀인 득점과 1분 30여초 전 나온 데이비스의 덩크로 2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포틀랜드 센터 유서프 누르키치가 16초를 남기고 통렬한 덩크를 꽂으며 ‘업셋’에 마침표를 찍었다. 동부 콘퍼런스에서 8위로 플레이오프에 턱걸이 진출한 올랜도 매직도 동부 1위이자 리그 최고 승률 팀인 밀워키 벅스를 1차전에서 122-110으로 제압하는 이변을 만들었다.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쿰보를 앞세운 밀워키의 공격력을 무력화한 올랜도의 ‘짚물 수비’가 빛났다.

올랜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가 승부처였던 3쿼터 14점을 포함해 총 35득점에 리바운드 14개를 잡아내며 팀 승리를 끌어냈다. 아데토쿰보는 경기 뒤 “부세비치가 ‘미친’ 활약을 펼쳤다”며 혀를 내둘렀다. 아데토쿰보는 31득점에 리바운드 17개를 기록했다. 서부 4위 휴스턴 로키츠는 홀로 37점을 해결한 제임스 하든을 앞세워 5위 오클라호마시티 선더를 123-108로 완파하고 시리즈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휴스턴은 1쿼터 중반부터 한 번도 리드를 놓치지 않고 여유 있게 이겼다. 휴스턴은 주요 득점원인 러셀 웨스트브룩이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결장한 채 1차전에 임했다. 그러나 하든이 3점 6개를 포함, 37점을 올리고 리바운드 11개를 잡아내는 ‘에이스’ 다운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인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강철비2: 정상회담
2관	오케이 마담
3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69세 강철비2: 정상회담
4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5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6관	오케이 마담
9관	나의 소녀시대, 빅사크3: 젤리몬스터 대소동
극장판	뽕구는 못말려! 신원여행 하리케인-사라진 아빠
7관	씨네카를 오케이 마담
8관	씨네카를 시크릿 가든, 반교: 디텐션, 반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핀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즐거움  
문화  
산책

